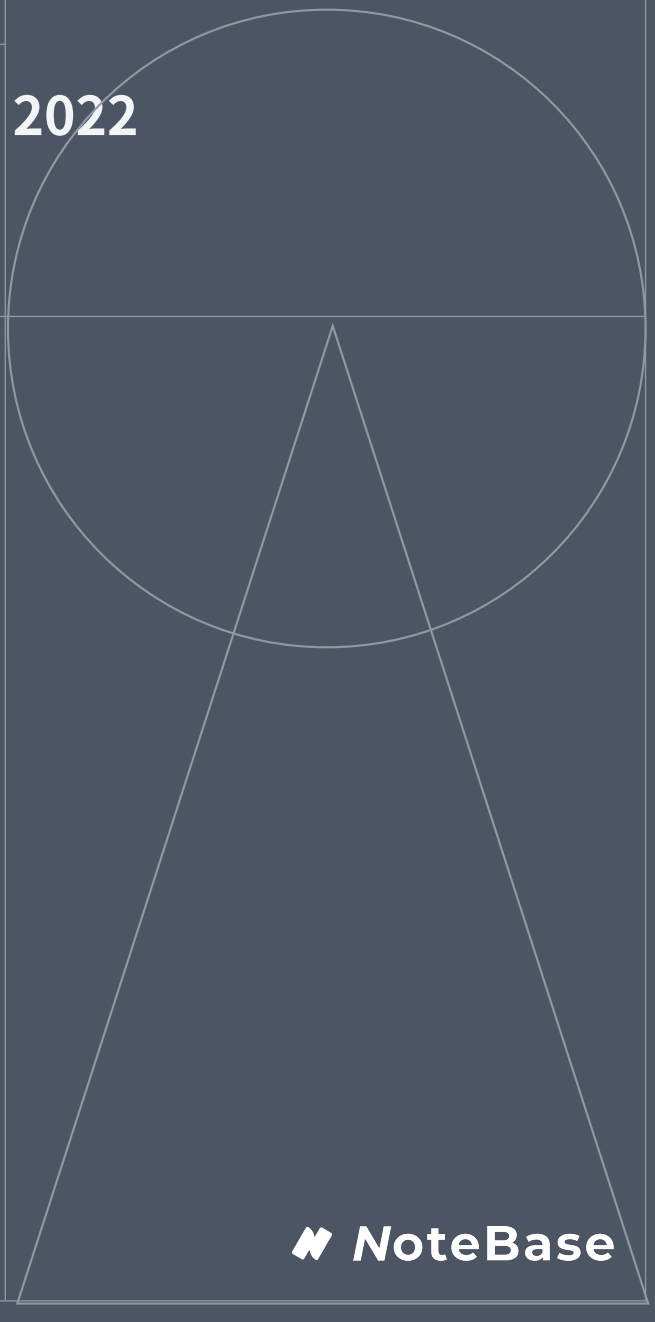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22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22

문 1.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그는 아까운 능력을 썩히고 있다.

② 음식물 쓰레기를 썩혀서 거름으로 만들었다.

③ 나는 이제까지 부모님 속을 썩혀 본 적이 없다.

④ 그들은 새로 구입한 기계를 창고에서 썩히고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부모님 속을 썩혀'는 **'부모님 속을 썩여'**로 고쳐야 한다. 걱정이나 근심으로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뜻에는 '썩히다'가 아니라 **'썩이다'**를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능력을 썩히다'는 가진 능력을 제대로 쓰지 않고 묵혀 둔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음식이 상한다는 뜻이 아니라 **능력을 활용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뜻이므로 '썩히고'가 적절하다.

② O: '썩히다'는 유기물이 분해되어 썩게 한다는 뜻으로 쓴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되게 하여 거름으로 만든다**는 문맥이므로 '썩혀서'가 적절하다.

③ X: 부모님의 마음을 걱정과 근심으로 괴롭게 한다는 뜻에는 **'속을 썩이다'**를 쓴다. '썩이다'에 '-어'가 붙으면 '썩이어'가 되고, 이것이 줄면 '썩여'가 된다. 따라서 '나는 이제까지 부모님 속을 썩여 본 적이 없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기계를 썩히다'는 기계를 쓰지 않고 방치한다는 뜻이다. 새로 구입한 기계를 **창고에 둔 채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맥이므로 '썩히고'가 적절하다.

NoteBase

문 2. (가)~(라)를 고쳐 쓴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오빠는 생김새가 나하고는 많이 틀려.
(나)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네가 잘됐으면 좋겠어.
(라)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시련을 주기도 한다.

① (가): 오빠는 생김새가 나하고는 많이 달라.
② (나):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③ (다):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네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④ (라):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시련을 주기도 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소망을 뜻하는 말은 '바라다'에서 나온 **'바람'**이다.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에서는 '바램'을 '바람'으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다르다'는 비교하는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는 뜻이다. 오빠와 나의 생김새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므로 **'달라'**가 적절하다. 이는 맞고 틀림을 판단하는 표현이 아니다.

② X: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뜻의 동사는 '바라다'이다. 그 어간 '바라-'에 명사를 만드는 '-ㅁ'이 붙은 말은 **'바람'**이므로 '바램입니다'를 '바람입니다'로 고쳐야 한다.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로 쓰면 된다.

③ O: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을 주어로 삼았으므로, 바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는 서술어가 필요하다. '거야'는 '것이야'가 줄어든 말로, 고친 문장은 **'…것은 …것이야'**의 구조를 이루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한다. 원문의 '좋겠어'로 끝내는 대신 '좋겠다는 거야'로 서술하여 바라는 내용을 설명한다.

④ O: '사랑하다'에서 사랑의 대상은 '인간을'로, '시련을 주다'에서 시련을 받는 대상은 '인간에게'로 나타낸다. **각 서술어가 요구하는 조사**를 구별하여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시련을 주기도 한다'로 표현했다.

NoteBase

문 3. 사자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는 구곡간장(九曲肝腸)이 끊어지는 듯한 슬픔에 빠졌다.

② 학문의 정도를 걷지 않고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이가 있다.

③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구밀복검(口蜜腹劍)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④ 신중한 태도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의 자세가 필요하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당랑거철'은 **자기 힘을 헤아리지 못하고 강한 상대에게 무모하게 맞서는 것**을 뜻한다. 신중하게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말로는 적절하지 않다.

선지별 해설

① O: '구곡간장'은 굽이굽이 서린 창자라는 뜻으로, **깊은 마음속**을 비유한다. 마음속이 끊어질 듯한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문맥에 어울린다.

② O: '곡학아세'는 **학문의 바른길을 벗어나 세상에 아첨하는 것**을 뜻한다. 학문의 정도를 걷지 않는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므로 문맥에 적절하다.

③ O: '구밀복검'은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은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품는 것**을 비유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 뒤에 악의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문맥에 어울린다.

④ X: '당랑거철'은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를 막는다는 뜻으로, **자기 힘을 헤아리지 못하고 강한 상대에게 무모하게 맞서는 것**을 비유한다. 신중하게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태도와는 맞지 않는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무모하게 덤비는 태도를 경계하는 문맥에 써야 한다.

NoteBase

문 4.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지민'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수: 지난번에 너랑 같이 들었던 면접 전략 강의가 정말 유익했어.
지민: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정수: 특히 아이스크림 회사의 면접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됐어.
지민: 맞아. 그중에서도 두괄식으로 답변하라는 첫 번째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더라. 핵심 내용을 먼저 말하는 전략이 면접에서 그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어.
정수: 어! 그래? 나는 두 번째 내용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는데.
지민: 그랬구나. 하긴 아이스크림 매출 증가에 관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답변한 전략도 설득력이 있었어. 하지만 초두 효과의 효용성도 크지 않을까 해.
정수: 그렇긴 해.

① 자신의 면접 경험을 예로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②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며 상대방의 이견을 반박하고 있다.
③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④ 상대방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지민은 통계 자료를 활용한 전략도 '설득력이 있었어'라고 말하며 **정수의 견해를 인정**한다. 이어 '하지만 초두 효과의 효용성도 크지 않을까 해'라며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지민이 언급한 것은 **함께 들은 면접 전략 강의의 내용**이다. 자신이 실제 면접을 치른 경험을 사례로 들어 상대방을 설득한 것이 아니다.

② X: 지민은 정수의 개인적 약점을 지적하거나 그의 의견을 공격하지 않는다. 오히려 통계 자료를 인용한 답변 전략도 설득력이 있었다고 **상대방 의견의 타당성을 인정**한 뒤 자신의 생각을 제시한다.

③ O: 정수가 두 번째 내용이 더 인상적이었다고 하자 지민은 '그랬구나'라고 반응하고, 그 전략도 설득력이 있었다고 인정한다. 이어 '하지만 초두 효과의 효용성도 크지 않을까 해'라고 말한다. 이는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자신이 인상적으로 받아들인 첫 번째 전략의 효과도 제시하는 방식이다.

④ X: 두 사람은 인상적으로 받아들인 강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감정을 표현하여 해결하려는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지민의 '인상적이더라'는 **강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나타내며, 상대방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감정 표현이 아니다.

NoteBase

문 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승상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구름이 걷히더니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낭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아 있었는데, 향로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까칠까칠하더라. 완연한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의가 아니었으니, 이에 제 몸이 인간 세상의 승상 양소유가 아니라 연화도량의 행자 성진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지.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출장입상하고 공명신퇴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었구나. 이는 필시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하신 것이로다.'
— 김만중, 「구운몽」에서 —

① '양소유'는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가 되었다.

② '양소유'는 인간 세상에 환멸을 느껴 스스로 '성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③ '성진'이 있는 곳은 인간 세상이 아니다.

④ '성진'은 자신의 외양을 통해 꿈에서 돌아왔음을 인식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성진은 **꿈에서 깨어난 뒤에** 양소유로 누렸던 부귀와 정욕의 허무함을 깨닫는다. 환멸을 먼저 느끼고 스스로 성진으로 돌아왔다는 설명은 이러한 사건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성진은 양소유로 살았던 일을 되돌아보며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라고 회상한다. 양소유가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한림학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제시되어 있다.

② X: 노승과 팔낭자가 사라지고 높은 대와 집들이 없어진 뒤, 인물은 작은 암자에서 자신의 승려 모습을 확인한다. 이어 양소유로 살았던 일이 꿈이었음을 깨닫고, 스승이 부귀와 정욕의 허무함을 알게 하려고 꿈을 꾸게 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환멸을 느껴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꿈에서 깨어나 자신의 처지를 확인한 뒤 꿈속 삶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다.

③ O: 성진은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고 회상하며, 자신의 본래 신분을 '연화도량의 행자 성진'으로 인식한다. 이 글의 공간 구분에서 **성진이 있는 연화도량과 양소유가 살았던 인간 세상은 구별된다**. 인간 세상은 양소유가 부귀공명을 누렸던 꿈속 세계를 가리킨다.

④ O: 인물은 몸에 걸린 백팔염주와 갓 깎은 머리털을 확인하여 자신이 대승상이 아닌 어린 승려의 모습임을 알아차린다. 이러한 **외양의 확인이 자신을 성진으로 인식하는 단서**가 되고, 이어 양소유의 삶이 하룻밤 꿈이었다고 깨닫는다.

따라서 꿈에서 깨어난 뒤의 깨달음을 스스로 돌아온 원인으로 설명한 ②가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문 6. (가)~(라)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간밤의 부던 ᄇᆞ람에 눈서리 치단 말가
㉠ 낙락장송(落落長松)이 다 기우러 가노ᄆᆡ라
ᄒᆞ믈며 못다 픤 곳이야 닐러 무슴 ᄒᆞ리오.

(나) 철령 노픈 봉에 쉬여 넘는 져 구룸아
고신원루(孤臣寃淚)를 비 사마 씌여다가
㉡ 님 계신 구중심처(九重深處)에 쓰려 본들 엇ᄃᆞ리.

(다) 이화우(梨花雨) 흣ᄲᅮ릴 제 울며 잡고 이별ᄒᆞᆫ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 저도 날 싱각ᄂᆞᆫ가
천리(千里)에 외로온 ᄭᅮᆷ만 오락가락 ᄒᆞ노매.

(라) 삼동(三冬)의 뵈옷 닙고 암혈(巖穴)의 눈비 마자
구롬 ᄭᅵᆫ 볏뉘도 쬔 적이 업건마ᄂᆞᆫ
서산의 ㉣ 히 디다 ᄒᆞ니 그를 셜워 ᄒᆞ노라.

① ㉠은 억울하게 해를 입은 충신을 가리킨다.

② ㉡은 궁궐에 계신 임금을 가리킨다.

③ ㉢은 헤어진 연인을 가리킨다.

④ ㉣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벗을 가리킨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라)의 ㉣은 **임금**을 비유한다. 서산에 해가 진다는 표현은 **임금의 죽음**을 뜻하며, 화자는 이를 슬퍼하고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의 '낙락장송'은 크고 곧은 소나무로, 굳은 지조를 지닌 충신을 비유한다. 눈서리를 맞아 소나무가 기울어 가는 모습은 **정치적 시련으로 충신들이 희생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따라서 ㉠을 억울하게 해를 입은 충신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O: (나)의 '고신원루'는 외로운 신하가 흘리는 원통한 눈물이며, '구중심처'는 임금이 거처하는 궁궐 깊숙한 곳이다. 화자는 자신의 눈물을 비로 만들어 그곳에 뿌려서라도 억울한 사정을 전하고 싶어 한다. 이때 ㉡ '님'은 **궁궐에 있는 임금**을 가리킨다.

③ O: (다)에서는 배꽃이 비처럼 흩날리던 때에 울며 붙잡고 이별한 임을 가을에도 그리워한다. '저도 날 생각는가'는 **상대도 자신을 그리워하는지** 묻는 말이다. 따라서 ㉢ '저'는 화자와 헤어진 연인을 가리킨다.

④ X: (라)의 ㉣은 **임금을 비유하는 해**이다. '볏뉘'는 잠깐 비치는 햇볕으로, 여기서는 임금의 은혜를 뜻한다. 화자는 그 은혜를 입은 적이 없으면서도 해가 진다는 소식, 곧 임금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한다. 따라서 ㉣은 오랜 벗이 아니라 임금을 가리킨다.

NoteBase

문 7.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그들의 끈기가 이 경기의 승패를 ㉠했다.
◯ 올해 영화제 시상식은 11개 ㉡으로 나뉜다.
◯ 그 형제는 너무 닮아서 누가 동생이고 누가 형인지 ㉢할 수 없다.

① ㉠: 가름, ㉡: 부문, ㉢: 구별
② ㉠: 가름, ㉡: 부분, ㉢: 구분
③ ㉠: 갈음, ㉡: 부문, ㉢: 구별
④ ㉠: 갈음, ㉡: 부분, ㉢: 구분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승패를 결정지었다는 뜻이므로 ㉠에는 **'가름'**을 쓴다. '갈음'은 다른 것으로 대신한다는 뜻이다.

빈칸별 해설

㉠ 가름: '가름'은 '가르다'의 명사형으로, 승부나 등수 등을 정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끈기가 경기의 **승패를 결정지었다**는 문맥이므로 '가름했다'가 알맞다. '갈음'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한다는 뜻이므로 이 문맥에 맞지 않는다.

㉡ 부문: '부문'은 어떤 분야를 나누어 놓은 각각의 부분을 뜻한다. 영화제에서 상을 주는 **분야를 11개로 나눈 것**이므로 '11개 부문'이 알맞다. '부분'은 전체를 이루는 일부를 뜻하는 말로, 여기서는 시상 분야를 가리키는 '부문'을 쓴다.

㉢ 구별: '구별'은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갈라서 알아보는 것을 뜻한다. 닮은 형제 가운데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알아보는 것**이므로 '구별할 수 없다'가 알맞다. '구분'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나누는 것을 뜻하므로 이 문맥과 다르다.

㉠ '가름', ㉡ '부문', ㉢ '구별'의 조합은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8. 다음 글의 '동기화 단계 조직'에 따라 (가) ~ (마)를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설득하는 말하기의 메시지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동기화 단계 조직'이 있다. 이 방법의 세부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주제에 대한 청자의 주의나 관심을 환기한다.
2단계: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지어 설명함으로써 청자의 요구나 기대를 자극한다.
3단계: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청자의 이해와 만족을 유도한다.
4단계: 해결 방안이 청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화한다.
5단계: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여 특정 행동을 요구한다.

(가) 지난주 제 친구는 일을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쳤습니다.
(나) 여러분이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 아마 여러분도 가끔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2천여 명이 자전거를 타다가 머리를 다쳐 고생한다고 합니다.
(라) 만약 자전거를 타는 모든 사람이 헬멧을 착용한다면 자전거 사고를 당해도 뇌손상을 비롯한 신체 피해를 75%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 타기가 주는 즐거움과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마)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가) - (나) - (다) - (라) - (마)
② (가) - (다) - (나) - (라) - (마)
③ (가) - (다) - (라) - (나) - (마)
④ (가) - (라) - (다) - (나) - (마)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헬멧 착용을 권하기 전에 자전거 사고가 **청자에게도 관련된 문제**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라)는 그 방안을 실천했을 때의 **효과를 구체화**한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가) → (다) → (나) → (라) → (마)

(가) 1단계: 친구가 자전거 사고로 머리를 다친 사례를 들려주어 자전거 안전이라는 주제에 청자의 주의와 관심을 끈다. 구체적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이어질 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다) 2단계: '여러분도 가끔 자전거를 타는 경우'를 언급하고 매년 2천여 명이 머리를 다친다는 내용을 제시한다. 사고를 친구만의 일이 아니라 **청자 자신에게도 생길 수 있는 문제**로 받아들이게 하여 안전에 대한 요구를 자극한다.

(나) 3단계: 앞에서 드러낸 머리 부상 문제에 대해 **헬멧 착용이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헬멧을 쓰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그 방안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이해하게 한다.

(라) 4단계: 헬멧 착용이라는 방안이 제시된 뒤, 이를 실천하면 신체 피해를 75% 줄이고 자전거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나)가 해결 방안을 소개한다면, (라)는 **실천했을 때 얻을 이익을 구체화**하여 청자가 그 효과를 그려 보게 한다.

(마) 5단계: 문제와 해결 방안, 그 효과를 이해한 청자에게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라고 요청한다. 앞선 설명을 바탕으로 **실제 행동을 요구**하며 말을 마무리한다.

NoteBase

문 9.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시는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분석 사업을 수행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자체 확보한 공공 데이터와 ○○시로부터 받은 복지 사업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공감 지도'를 제작하고, 복지 기관 접근성 분석을 통해 취약 지역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 공감 지도는 공간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에 소재한 복지 기관들의 다양한 지원 항목과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 대상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수급자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 이 지도를 활용하면 복지 혜택이 필요한 지역과 수급자를 빨리 찾아낼 수 있으며, 생필품 지원이나 방문 상담 등 복지 기관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고, 최적의 복지 기관 설립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그동안 복지 기관으로부터 도보로 약 15분 내 위치한 수급자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이에 교통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복지 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발견하고, 복지 셔틀버스 노선을 4개 증설할 계획을 수립했다.

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복지 기관과 수급자 거주지 사이의 거리는 복지 혜택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

③ 복지 기관 접근성 분석 결과는 복지 셔틀버스 노선 증설의 근거가 된다.

④ 복지 공감 지도로 복지 혜택에 대한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복지 공감 지도는 **복지 기관의 지원 항목과 수급자 현황**을 보여 준다. 수급자가 받은 혜택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여기는지에 관한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만족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둘째 문단에서 복지 공감 지도로 복지 혜택이 필요한 지역과 수급자를 빨리 찾아내고, 생필품 지원이나 방문 상담 등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빅데이터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과 지역을 찾아 대응**할 수 있으므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일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O: 셋째 문단에서 복지 기관으로부터 **도보로 약 15분 내에 있는 수급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기관과 가까운 수급자에게 혜택이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기관과 거주지 사이의 거리가 복지 혜택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이해를 뒷받침한다.

③ O: 셋째 문단에서 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복지 셔틀버스 노선 4개를 증설할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접근성 분석으로 확인한 방문의 어려움이 노선 증설 계획의 근거가 된 것이다.

④ X: 둘째 문단에서 복지 공감 지도가 보여 주는 정보는 복지 기관의 지원 항목과 이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 현황이다. 이는 어디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게 해 주지만, 수급자가 혜택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보여 준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개별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은 근거가 없으며, **복지 기관의 지원 항목과 수급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0.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양상은 다양하다. 첫째, “아침 먹고 또 공부하자.”에서 ‘아침’은 본래의 의미인 ‘하루 중의 이른 시간’을 가리키지 않고 ‘아침에 먹는 밥’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밥’의 의미가 ‘아침’에 포함되어서 ‘아침’만으로도 ‘아침밥’의 의미를 표현하게 된 것으로, ㉠ 두 개의 단어가 긴밀한 관계여서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변화하게 된 경우이다. 둘째, ‘바가지’는 원래 박의 껍데기를 반으로 갈라 썼던 물건을 가리켰는데, 오늘날에는 흔히 플라스틱 바가지를 가리킨다. 이것은 ㉡ 언어 표현은 그대로인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시 대상 자체가 바뀌어서 의미 변화가 발생한 경우이다. 셋째, ‘묘수’는 본래 바둑에서 만들어진 용어이지만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도 ‘쉽게 생각해 내기 어려운 좋은 방안’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던 말이 일반화되면서 단어의 의미가 변화한 경우에 해당한다. 넷째, 호랑이를 두려워하던 시절에 사람들은 ‘호랑이’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기 꺼려서 ‘산신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 심리적인 이유로 특정 표현을 피하려다 보니 그것을 대신하는 단어의 의미에 변화가 생긴 경우이다.

① ㉠: ‘아이들의 코 묻은 돈’에서 ‘코’는 ‘콧물’의 의미로 쓰인다.

② ㉡: ‘수세미’는 원래 식물의 이름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릇을 씻는 데 쓰는 물건’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③ ㉢: ‘배꼽’은 일반적으로 ‘탯줄이 떨어지면서 배의 한가운데에 생긴 자리’를 가리키지만 바둑에서는 ‘바둑판의 한가운데’라는 의미로 쓰인다.

④ ㉣: 무서운 전염병인 ‘천연두’를 꺼려서 ‘손님’이라고 불렀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배꼽'은 일상에서 쓰던 말이 **바둑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쓰인** 사례이다. ㉢은 이와 반대로 **특수 영역의 말이 일상어로 일반화되는** 경우를 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은 긴밀하게 관련된 두 단어 중 하나가 다른 하나의 의미까지 포함하게 되는 경우이다. '코 묻은 돈'에서 돈에 묻은 것은 코 자체가 아니라 코에서 나오는 콧물이다. 신체 기관인 '코'가 그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콧물'의 의미까지 포함**하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② O: ㉡은 말의 형태는 유지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수세미'는 본래 식물의 이름이며, 그 열매의 섬유를 그릇을 씻는 데 사용했다. 이후 다른 재료로 만든 설거지 도구에도 같은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지시 대상이 달라진** ㉡의 사례에 해당한다.

③ X: ㉢은 특수한 영역에서 쓰이던 말이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도 쓰이게 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배꼽'은 신체의 한 부분을 가리키던 일상어가 바둑에서 바둑판의 한가운데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 것이므로, **일상어가 특수 영역에 쓰이는** 방향이다. 따라서 ㉢의 사례로 연결할 수 없다. ㉢에는 지문의 '묘수'처럼 바둑 용어가 일상에서 좋은 방안을 뜻하는 말로 쓰이는 사례가 해당한다.

④ O: ㉣은 두려움 등의 심리적 이유로 어떤 표현을 피하면서 대신 쓰는 말에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경우이다. 천연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명을 직접 부르지 않고 '손님'이라고 부르면서, '손님'이 천연두를 가리키는 의미도 갖게 되었다. 이는 **꺼리는 표현을 다른 말로 대신한** ㉣의 사례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1.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 시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우리 농장 근처에 신축된 골프장의 빛 공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빛이 공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야간 조명이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골프장이 야간 운영을 시작했을 때를 기점으로 우리 농장의 수확률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무조건 막는다면 골프장 측에서 반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야간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운영 제한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등의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군에서도 빛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조명의 조도를 조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농장과 골프장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① 시장에게 빛 공해로 농장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② 건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③ 다른 지역에서 야간 조명으로 인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④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제한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고 언급했지만, **연구자·연구 기관·자료명 등 구체적인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드는 것과 그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글쓴이는 골프장이 야간 운영을 시작한 뒤 농장의 수확률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설명한다. 이어 △△시가 빛 공해 문제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끝부분에서 시장에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상생 정책을 펼쳐 달라**고 요청한다.

② X: 지나친 야간 조명이 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고만 했을 뿐, **어떤 연구나 자료를 인용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활용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O: ○○군에서 빛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조명의 조도를 조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를 언급하고, 이를 참고해 보라고 권한다. 다른 지역의 대응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④ O: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무조건 막으면 **골프장 측이 반발할 것**이라는 문제를 예상한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계절에 따른 야간 운영 시간 조정과 운영 제한에 따른 손실금 보전을 제안한다.

NoteBase

문 12. 다음 대화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진: 태민아, ㉠이 책 읽어 봤니?
태민: 아니, ㉡그 책은 아직 읽어 보지 못했어.
이진: 그렇구나. 이 책은 작가의 문체가 독특해서 읽어 볼 만해.
태민: 응, 꼭 읽어 볼게. 한 권 더 추천해 줄래?
이진: 그럼 ㉢저 책은 어때? 한국 대중문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룬 재미있는 책이야.
태민: 그래, ㉣그 책도 함께 읽어 볼게.
이진: (두 책을 들고 계산대로 간다.) 읽어 보겠다고 하니, 생일 선물로 ㉤이 책 두 권 사 줄게.
태민: 고마워. 잘 읽을게.

① ㉠은 청자보다 화자에게, ㉡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② ㉢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③ ㉢과 ㉣은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④ ㉤은 ㉡과 ㉢ 모두를 가리킨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의 '저 책'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서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화자보다 청자에게 더 멀리 있다는 상대적 거리 차이를 나타내는 표현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을 말하는 화자는 이진이고 청자는 태민이다. '이 책'은 이진 가까이에 있는 책을 가리킨다. ㉡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서로 바뀐다**. 태민이 화자이고 이진이 청자이므로, 이진 가까이에 있는 같은 책을 '그 책'이라고 가리킨 것은 청자 가까이에 있는 대상을 지시한 것이다.

② X: '저'는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서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은 이진과 태민 모두에게서 멀리 있는 책을 가리키므로, '화자보다 청자에게 멀리 있는 대상'이라는 설명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서 멀리 있는 대상'으로 고쳐야 한다. '저'만으로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더 먼지는 알 수 없다.

③ O: 이진이 ㉢으로 한국 대중문화를 다룬 책을 새로 추천하자 태민은 그 책도 읽겠다고 응답한다. ㉣의 '그 책'은 **앞서 언급된 대상**을 다시 가리킨다. 따라서 ㉢과 ㉣은 모두 두 번째로 추천한 같은 책을 뜻한다.

④ O: 이진은 '두 책을 들고' 계산대로 가면서 '이 책 두 권'을 사 주겠다고 말한다. 따라서 ㉤은 **이진이 들고 있는 두 권의 책 모두**를 가리킨다. 첫 번째 책을 가리키는 ㉡과 두 번째 책을 가리키는 ㉢이 모두 포함된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 또는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방위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전근대사회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산업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탄생한 근대사회에 이르러 구빈법에 따른 국가 개입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아동보호가 시작되었다.

1922년 잽 여사는 아동권리사상을 담아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성문화하였다. 이를 기초로 1924년 국제연맹에서는 전문과 5개의 조항으로 된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아동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든지 "아동의 재능은 인류를 위해 쓰인다는 자각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아동은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되었을 뿐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최근에 와서야 국제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아동은 보호되어야 할 수동적인 존재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토대로 2016년 「아동권리헌장」 9개 항을 만들었다. 이 헌장은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이 최선의 이익을 보장 받을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의견이 존중될 권리' 등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문에는 아동의 권리와 더불어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여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주체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

② 「아동권리헌장」은 「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③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헌장」에는 모두 아동의 발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④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은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에 대한 진전된 성과를 이루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은 아동을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했다. 아동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것은 글에서 1989년 「아동권리협약」과 연결해 설명한 변화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첫째 문단에서는 전근대사회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이어 근대사회에 이르러 국가의 개입과 민간단체의 참여로 **아동보호가 시작되었다**고 했으므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는 이해는 글의 내용에 부합한다.

② O: 넷째 문단의 첫 문장에서 우리나라가 '이를 토대로' 2016년 「아동권리헌장」을 만들었다고 했다. 여기서 '이'는 앞 문단의 **1989년 「아동권리협약」**을 가리킨다. 또한 헌장에 협약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므로, 두 문서의 바탕과 결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O: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에는 물질적·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셋째 문단에서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권리의 주체라는 설명과 연결되고, 「아동권리헌장」은 '생존과 발달의 권리'를 포함한다. 따라서 **세 문서 모두 아동의 발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④ X: 셋째 문단의 '그러나 여기에서도'는 앞 문단의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이어 받는다. 글은 이 선언에서 아동이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되었을 뿐**,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는 않았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선지의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했다는 부분은 '아동을 보호의 객체로 인식'했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의 변화는 뒤에 나오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설명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 신동엽, 『봄은』 —

① 현실을 초월한 순수 자연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
② 희망과 신념을 드러내는 단정적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③ 시어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④ '봄'과 '겨울'의 이원적 대립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답 1번

NoteBase

간단한 해설

이 시는 현실을 초월한 순수 자연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봄'을 통해 **미움과 대립을 극복한 화합과 평화**를 지향한다. 자연 현상은 우리 현실과 그 현실을 바꾸려는 희망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쓰였다.

선지별 해설

① X: '봄'과 '겨울'은 단순한 자연의 계절이 아니다.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은 미움과 대립이 존재하는 현실을 드러내며, 봄이 이를 녹인다는 것은 그러한 현실의 극복을 뜻한다. 따라서 순수 자연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대립을 넘어 화합과 평화를 이루려는 소망**을 노래한다.

② O: '오지 않는다', '움튼다'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으로 봄이 오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우리들 가슴속에서 / 움트리라'는 봄이 우리 내부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다. 마지막에는 봄이 미움의 쇠붙이를 녹일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한다.

③ O: '봄'은 화합과 평화의 세계를, '겨울'과 '매운 눈보라'는 고통과 대립의 현실을 상징한다. '미움의 쇠붙이들'도 적대와 폭력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낸 표현이다. 이러한 상징들은 **우리 스스로 미움과 대립을 극복하자는 주제**를 형성한다.

④ O: '너그럽고 / 빛나는' 봄과 '매운 눈보라'를 몰고 온 겨울은 서로 대립한다. 또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왔지만 봄은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튼다는 점에서도 대비된다. 시는 이 대립을 바탕으로 **겨울의 부정적 현실이 봄에 의해 극복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나아간다.

NoteBase

문 15.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이 기관을 잘 수리하여 정련하면 그 작동도 원활하게 될 것이요, 수리하지 아니하여 노둔해지면 그 작동도 막혀 버릴 것이니 이런 기관을 다스리지 아니하고야 어찌 그 사회를 고취하여 발달케 하리오.

(나) 이러므로 말과 글은 한 사회가 조직되는 근본이요, 사회 경영의 목표와 지향을 발표하여 그 인민을 통합시키고 작동하게 하는 기관과 같다.

(다) 말과 글이 없으면 어찌 그 뜻을 서로 통할 수 있으며, 그 뜻을 서로 통하지 못하면 어찌 그 인민들이 서로 이어져 번듯한 사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으리오.

(라) 그뿐 아니라 그 기관은 점점 녹슬고 상하여 필경은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니 그 사회가 어찌 유지될 수 있으리오. 반드시 패망을 면하지 못할지라.

(마) 사회는 여러 사람이 그 뜻을 서로 통하고 그 힘을 서로 이어서 개인의 생활을 경영하고 보존하는 데에 서로 의지하는 인연의 한 단체라.

— 주시경, 「대한국어문법 발문」에서 —

① (마) - (가) - (다) - (나) - (라)
② (마) - (가) - (라) - (다) - (나)
③ (마) - (다) - (가) - (라) - (나)
④ (마) - (다) - (나) - (가) - (라)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다)는 말과 글이 있어야 사람들의 뜻이 통하고 사회가 성립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나)의 **'이러므로'**는 이를 받아 말과 글의 역할을 정리한다. 이어 (가)의 **'이 기관'**은 (나)의 말과 글을 가리키고, (라)는 이를 돌보지 않을 때의 폐해를 사회의 패망으로까지 확대한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마) → (다) → (나) → (가) → (라)

(마): 사회를 사람들이 뜻과 힘을 모아 생활을 유지하며 서로 의지하는 단체로 정의한다. 다른 문장의 내용을 전제로 하는 지시어나 접속 표현 없이 글의 중심 대상인 사회를 소개하므로 첫머리에 놓인다.

(다): (마)의 '그 뜻을 서로 통하고 그 힘을 서로 이어서'라는 내용을 받아, **말과 글이 없으면 의사소통과 사회 형성이 어렵다**고 설명한다. 사회의 정의에서 출발하여 사회를 이루는 데 말과 글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나아간다.

(나): **'이러므로'**는 앞서 설명한 말과 글의 필요성을 근거로 결론을 이끄는 표현이다. (다)에 이어 말과 글이 사회 조직의 근본임을 밝히고, 사람들을 통합하여 움직이게 하는 '기관'에 비유한다.

(가): **'이 기관'**은 (나)에서 기관에 비유한 말과 글을 가리킨다. 그 기관을 수리하고 다듬으면 원활하게 작동하지만 돌보지 않으면 작동이 막힌다고 설명하여, 사회 발전을 위해 말과 글을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 간다.

(라): **'그뿐 아니라'**는 (가)의 '수리하지 아니하여' 기관의 작동이 막히는 상황을 이어받는다. 돌보지 않은 기관이 마침내 쓸 수 없게 되듯, 말과 글을 다스리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못하고 패망하게 된다는 더 심각한 결과를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NoteBase

문 16.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오늘 협상에서 만족(滿足)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② 김 위원의 주장을 듣고 그 의견에 동의하여 재청(再請)했다.

③ 우리 지자체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解結)할 방안이 생각났다.

④ 다수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기에 재론(再論)이 필요하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문제를 풀어서 처리한다는 뜻의 '해결'은 **解決**로 쓴다. '解結'의 結(맺을 결)이 아니라 決을 써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만족(滿足)'은 마음에 흡족하거나 모자람 없이 충분함을 뜻한다. 滿은 '가득하다', 足은 '넉넉하다'라는 뜻이므로, 협상에서 흡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문맥에 맞는 표기이다.

② O: '재청(再請)'은 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동의나 주장에 **찬성하여 발언하는 것**을 뜻한다. 再는 '다시', 請은 '청하다'라는 뜻으로, 김 위원의 의견에 동의했다는 문맥에서 '再請'으로 적는다.

③ X: '해결'은 제기된 문제를 풀어서 처리한다는 뜻으로 **解決**로 적는다. 선지의 '解結'은 '解決'로 고쳐야 한다. 結은 '맺을 결'로, 이 단어에 쓰는 決과 구별한다.

④ O: '재론(再論)'은 **이미 논의한 것을 다시 논의함**을 뜻한다. 再는 '다시', 論은 '논하다'라는 뜻이므로, 다수가 동의하지 않은 의견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문맥에 맞는 표기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에서 고르면?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유럽이 교회로부터 정신적으로 해방된 것은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 작가들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서였다. ㉠ 그 이후 고대 작가들의 문체는 귀족 중심의 유럽 문화에서 모범으로 여겨졌다. ㉡ 이러한 상황은 대략 1770년대에 시작되는 낭만주의에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 이 낭만주의 시기에 평등과 민주주의를 꿈꿨던 신흥 시민계급은 문학에서 운문과 영웅적 운명을 귀족에게만 전속시키고 하층민에게는 산문과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배정하는 전통 시학을 거부했다. ㉣ 고전 문학은 더 이상 문학의 규범이 아니었으며, 문학을 현실의 모방으로 인식하는 태도도 포기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주어진 문장은 **신분별로 문체를 고정하는 관습을 거부했다는 뜻**을 풀어 설명한다. 귀족에게는 운문을, 하층민에게는 산문을 배정하던 전통 시학을 신흥 시민계급이 거부했다는 문장 뒤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NoteBase

핵심 풀이

주어진 문장의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화하는 것'은 신분을 기준으로 사용할 문체를 고정하는 관습을 뜻한다.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는 앞서 서술한 태도나 행동의 의미를 풀어 정리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앞 문장에 **신분에 따른 문체 배정을 거부한 내용**이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 앞 문장은 고대 작가들의 재발견을 통해 유럽이 교회로부터 정신적으로 해방되었다는 내용이다. 종교적 권위에서 벗어난 일은 설명하지만, 신분별 문체 배정을 거부한 태도는 제시하지 않는다.

㉡: 앞 문장은 고대 작가들의 문체가 귀족 중심 문화에서 모범으로 여겨졌다는 내용이다. 기존 문체의 권위를 인정하던 상황이므로, 그 뒤에 문체의 고착화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붙이면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

㉢: 앞 문장은 낭만주의부터 기존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개괄적인 설명이다.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문장에 나오므로, 이 위치에서는 무엇이 신분별 문체의 고착화를 거부한 것인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 앞 문장은 신흥 시민계급이 귀족에게 운문과 영웅적 운명을, 하층민에게 산문과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배정하는 전통 시학을 거부했다고 설명한다. 이는 바로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정하는 관습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어진 문장과 구체적으로 대응한다. 뒤 문장도 고전 문학의 규범적 지위와 현실 모방이라는 문학관이 사라졌다는 내용이어서, 기존 문학 질서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이어진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전통 시학을 거부한 태도의 의미를 풀어 주는 ㉣에 들어가며, 이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④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거장에 나온 박은 수염도 깎은 지 오래어 터부룩한 데다 버릇처럼 자주 찡그려지는 비웃는 웃음은 전에 못 보던 표정이었다. 그 다니는 학교에서만 지싯지싯※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에서 긴치 않게 여기는, 지싯지싯 붙어 있는 존재 같았다. 현은 박의 그런 지싯지싯함에서 선뜻 자기를 느끼고 또 자기의 작품들을 느끼고 그만 더 울고 싶게 괴로워졌다.

한참이나 붙들고 섰던 손목을 놓고, 그들은 우선 대합실로 들어왔다. 할 말은 많은 듯하면서도 지껄여 보고 싶은 말은 골라낼 수가 없었다. 이내 다시 일어나 현은,
“나 좀 혼자 걸어 보구 싶네.”
하였다. 그래서 박은 저녁에 김을 만나 가지고 대동강가에 있는 동일관이란 요정으로 나오기로 하고 현만이 모란봉으로 온 것이다.

오면서 자동차에서 시가도 가끔 내다보았다. 전에 본 기억이 없는 새 빌딩들이 꽤 많이 늘어섰다. 그중에 한 가지 인상이 깊은 것은 어느 큰 거리 한 뿌다귀※에 벽돌 공장도 아닐 테요 감옥도 아닐 터인데 시뻘건 벽돌만으로, 무슨 큰 분묘와 같이 된 건축이 웅크리고 있는 것이다. 현은 운전사에게 물어보니, 경찰서라고 했다.

— 이태준, 「패강랭」에서 —

※ 지싯지싯: 남이 싫어하는지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짓궂게 자꾸 요구하는 모양.
※ 뿌다귀: ‘뿌다구니’의 준말로, 쑥 내밀어 구부러지거나 꺾어져 돌아간 자리.

① ‘현’은 예전과 달라진 ‘박’의 태도가 자신의 작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② ‘현’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박’을 통해 자신을 연민하고 있다.
③ ‘현’은 새 빌딩들을 보고 도시가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④ ‘현’은 시뻘건 벽돌로 만든 경찰서를 보고 암울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현'은 달라진 '박'의 모습을 보고 **자신과 자기 작품의 처지를 떠올린다**. 자기 작품이 '박'의 태도를 바꾸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현'은 '박'의 달라진 표정을 보고, 그가 학교에서뿐 아니라 시대 전체에서도 긴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존재 같다고 느낀다. 이어 '박'의 모습에서 자기와 자기 작품들을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이는 **'박'의 처지에 자신과 작품의 처지를 겹쳐 보는 것**이며, 자기 작품 때문에 '박'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② O: '현'은 '박'의 '지싯지싯함'에서 '선뜻 자기를 느끼고 또 자기의 작품들을 느끼고' 울고 싶을 만큼 괴로워한다. 시대에 긴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박'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므로, 그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③ O: '현'은 자동차에서 시가를 내다보며 '전에 본 기억이 없는 새 빌딩들이 꽤 많이 늘어섰다'고 인식한다. **과거에 보았던 도시와 현재의 풍경을 비교**하여 새로운 건물이 많이 들어섰음을 알아차린 것이다.

④ O: 경찰서는 '시뻘건 벽돌'로 지어졌으며, '무슨 큰 분묘와 같이 된 건축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큰 무덤에 빗댄 표현과 '웅크리고'라는 표현**이 건물을 음산하고 위압적으로 느끼는 '현'의 시선을 드러내므로, 암울한 분위기를 느낀다는 이해가 가능하다.

NoteBase

문 19. 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은?

한글 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나)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① (가)에 따라 '아래 + 집'은 '아랫집'으로 적는다.
② (가)에 따라 '쇠 + 조각'은 '쇳조각'으로 적는다.
③ (나)에 따라 '전세 + 방'은 '전셋방'으로 적는다.
④ (나)에 따라 '자리 + 세'는 '자릿세'로 적는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전세(傳貰)'와 '방(房)'은 **모두 한자어**이므로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결합을 다룬 (나)를 적용할 수 없다. 사이시옷을 넣지 않고 **'전세방'**으로 적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아래'와 '집'은 모두 순우리말이다. 앞말 '아래'가 모음으로 끝나고, 합성어에서 뒷말 '집'의 첫소리가 된소리 [ㅉ]으로 나므로 (가)에 따라 사이시옷을 넣어 '아랫집'으로 적는다.

② O: '쇠'와 작은 덩어리를 뜻하는 '조각'은 **모두 순우리말**이다. 앞말 '쇠'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 '조각'의 첫소리가 된소리 [ㅉ]으로 나므로 (가)에 따라 '쇳조각'으로 적는다.

③ X: '전세(傳貰)'와 '방(房)'은 모두 한자어이다. (나)는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한 합성어**에 적용하므로 '전세 + 방'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셋방'을 **'전세방'**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자리'는 순우리말이고, 사용한 대가로 내는 돈을 뜻하는 '세(貰)'는 한자어이다. 따라서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결합**이다. 앞말 '자리'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 '세'의 첫소리가 된소리 [ㅆ]으로 나므로 (나)에 따라 '자릿세'로 적는다.

NoteBase

문 20.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것은?

문화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각과 행동 양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특정 생각과 행동 양식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전파되는 기제이다.

이에 대한 견해 중 하나는 문화를 생각의 전염이라는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예컨대, 리처드 도킨스는 '밈(meme)'이라는 개념을 통해 생각의 전염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문화는 복수의 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전자에 저장된 생명체의 주요 정보가 번식을 통해 복제되어 개체군 내에서 확산되듯이, 밈 역시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내에서 복제를 통해 확산된다.

그러나 문화 전파의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밈 이론보다 의사소통 이론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일례로, 요크셔 지역에 내려오는 독특한 푸딩 요리법은 누군가가 푸딩 만드는 것을 지켜본 후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방식으로 전파되었다기보다는 요크셔 푸딩 요리법에 대한 부모와 친척, 친구들의 설명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고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생명체의 경우와 달리 문화는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로 전파되지 않는다. 전파된 문화와 그것을 수용한 결과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더라도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요크셔 지방의 푸딩 요리법은 다른 지방의 푸딩 요리법과 변별되는 특색을 지니는 동시에 요크셔 지방 내부에서도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푸딩 요리법의 수신자가 발신자가 전해 준 정보에다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기 때문인데, 복제의 관점에서 문화의 전파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반면, 의사소통 이론으로는 설명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남에게 전달할 때 들은 이야기에다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① 문화의 전파 기제는 밈 이론보다는 의사소통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문화의 수용 과정에는 수용 주체의 주관이 개입하지 않는다.

③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특정 공동체의 문화는 다른 공동체로 복제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

④ 요크셔 푸딩 요리법이 요크셔 지방의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는 현상은 밈 이론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문화는 전파되는 과정에서 수용자가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글쓴이는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밈 이론보다 **의사소통 이론**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글쓴이는 셋째 문단에서 문화 전파의 기제를 설명하는 데 밈 이론보다 의사소통 이론이 더 적절하다고 직접 밝힌다. 이어 요크셔 푸딩 요리법이 사람들의 설명을 통해 전해지고, 수용자의 생각이 더해져 가정이나 개인마다 달라진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즉, 의사소통 이론은 **전파 과정에서 생기는 세부적인 차이**까지 설명할 수 있다.

② X: 마지막 문단에서 푸딩 요리법의 수신자는 발신자가 전해 준 정보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다고 했다. 이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수용 주체의 주관이 개입하지 않는다'를 '수용 주체의 주관이 개입한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지문에서 문화를 **복제를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견해는 밈 이론이다. 의사소통 이론은 사람들이 설명이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문화를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더한다는 데 주목한다. 선지의 오류는 다른 공동체로 전파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제를 의사소통 이론의 전파 기제로 제시한 데 있다.

④ X: 요크셔 지방 안에서도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 푸딩 요리법이 달라지는 것은 수신자가 전달받은 정보에 자신의 생각을 더했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이런 차이를 복제의 관점에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의사소통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밈 이론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를 '의사소통 이론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